



유 석 재

(쌍용정유 판매기획부장)

1981년 국내 정유업계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그 이태전에 벌어진 현직 대통령 살해사건, 다음해에 발발한 광주사태, 기억하기조차 싫은 얼룩들. 1981년은 이러한 상처를 안은 채 오늘의 열리고 혼돈된 시대를 예고하며 짙은 어둠으로 우리 사회가 함몰하기 시작한 때였다.

그러나 정치가 제 기능을 상실할수록 마치 그것을 보상하듯 경제는 오히려 활성화되던 것도 6공화국 이전 지난 20년간의 우리 사회가 으레 경험해 온 바이다. 81년초 우리나라 다섯번째의 정유회사가 가동을 시작하여 정치의 암울함과 엇갈리게 정유업계는 새로운 장을 맞게 된다.

그해 3월은 정유회사가 대리점과 주유소를 소유 또는 직영하는 것을 금하는 동력자원부의 조정명령이 발동된 달이다. 뒷날 그 날짜를 따서 「3·14 조정명령」이라 불리우게 된 이 조치는 두고두고 시비와 논란의 불씨가 되고 위반사례와 당위성을 둘러싼 감론을박이 끊이지 않게 된다.

1981년 3월은 또한 1980년의 결산작업이 마무리되는 달이기도 하다. 대충 계산된 가결산의 결과, 국내 정유업계는 1980년 한해 동안에 1950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어렵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3·14 조정명령」과 거의 날을 같이 하여 「석유협회보」는 창간호를 상梓한다. 우리나라의 정유회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석유협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이란 뜻의, 지극히 무미건조한 제호를 내걸은 석유협회보는, 그러나 나무랄데 없는 편집기술과 지질, 발행부수로 첫 출발을 했다.

나무랄데 없는 것은 외양 뿐이 아니었다. 내용은 오히려 우리의 기대 이상이었다. 창간호는 「우리나라 석유정책의 당면과제와 추진방향」이란 제목의 당시 동력자원부 장관인 박봉환씨의 글을 머리기사로 석유가격제도에 관한 특집을 싣고 있다. 같은 해 7월호의 「저유황유와 탈공해」는 물론 10월호의 「석유유통과 공정거래법」도 창간 1년 미만의 잡지로서는 보기 드문 시의성있는 편집으로 꼽을만 하다.

석유협회보는 창립1주년 특대호에서 「석유업계의 당면과제와 전망」이란 주제의 특집기사로 정유산업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처방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창간 100호를 맞는 이 시점에서 석유협회보는 석유정책의 주무당국과 이해당사자의 시각의 共域내로 테마를 제한하고, 논지를 기속시키며, 불편부당의 兩是論의 논리를 앞세우고 무색무취의 잡지로 온존하는 것이 체질화되었다는 지적에도 심각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 이러한 노력은 다음해 5월호의 「국제석유정세와 원유도입정책」, 9월호의 「중질유대책」등으로 더욱 원숙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83년 7월호의 「가스연료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84년 5월호의 「석유현물시장의 분석」, 같은 해 9월호의 「석유개발」, 85년 4월호의 「환경보전과 유류」, 11월호의 「무연휘발유」, 86년 1월호의 「중공의 석유산업」등의 기사는 협회보 편집진이 제한된 여건하에서도 정유산업의 위상과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言官의 역할을 다 하려고 애써왔음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지난 8년여간 석유협회보는 국내 유일의 석유종합전문지로서 국내외 석유산업의 동향과 석유정책방향에 관한 시의성있는 글과 풍부한 자료로 국내 석유산업의 발전에 알찬 기여를 하여 왔다. 정책당국과 석유관계 일부 인사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를 일반이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왔다는 점에서 석유협회보의 성과는 몇 마디 찬사로 기릴 수 없을 것이다.

부족한 예산과 겨우 4명 정도의 인력으로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협회보 편집진이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회생을 치러 왔음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이 석유협회보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일말의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창간 100호를 맞는 이 시점에서 석유협회보는 석유정책의 주무당국과 이해당사자의 시각의 共域내로 테마를 제한하고, 논지를 기속시키며, 불편부당의 兩是論의 논리를 앞세우고 무색무취의 잡지로 온존하는 것이 체질화되었다는 지적에도 심각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

이다.

석유협회보가 태어난 그해, 그달에 발동된 「3·14 조정명령」에 대해 지난 8년간 한번도 이를 정면으로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석유협회보는 석유협회의 기관지로서 원천적인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정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이해가 엇갈리고 시각이 다른 문제를 피하므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조화있게 제시하고 심층적인 분석으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민감한 문제라고 다루길 기피하고 있는 동안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인 논리로 밀어제기면 결국 정유업계를 비롯한 석유산업은 물론 국민경제 자체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데 석유협회보가 부딪힐 어려움 중의 하나는 필자층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정유산업은 전문성과 폐쇄성의 특성으로 여타 산업에 비해 필자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필자의 개발은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주요 이슈에 관해 관련 당사자의 화담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 더 사족을 달면, 석유협회보는 석유문제에 관한 국내 유일의 종합전문지인 만큼 지면을 좀더 이겨 석유문제와 관계없는 글은 과감히 포기하고 중요한 테마를 선정,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주기를 바란다.

창간 100호를 맞아 석유협회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진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축하를 보내며 몇마디 고언을 담아 보았다. ☐